

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의 비교적 빠른 금리 인상 발언과 소비자물가 등 경제지표 호조로 하락

* 국채가격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에다 소비자물가까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지표 호조로 가파르게 하락 출발

* 물가 압력이 강해지면서 고용시장과 주택시장,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등 이날 나온 지표들은 국채가 낙폭을 더 확대하는 요인이 됨

* 최근 미 국채가 급락이 해외 세력의 매수세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짐

- 日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주간에 일본 투자자들이 4천662억엔의 해외 채권 순 매입

[미국]

2y 1.03% (+2.1bp)

5y 1.71% (+4.4bp)

10y 2.28% (+5.9bp)

30y 3.00% (+7.3bp)

[기타 10Y물]

영국 1.41% (+2.7bp)

독일 0.28% (-1.9bp)

프랑스 0.74% (+0.2bp)

이탈리아 2.09% (+6.1bp)

스페인 1.59% (+4.9bp)

그리스 7.18% (-7.5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경기지표 호조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

*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의장 '향후 발표될 (경제)지표가 위원회 목표치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면 비교적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'

-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

-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"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고용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면 FOMC는 경제전망을 조정할 수 있다"며 금리 인

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열어놓

-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기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"임기를 마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일축

* 대체로 긍정적인 美 경제 지표

-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, 휘발유와 임대료 상승에 힘입어 6개월 만에 최고치...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

10월 CPI 전월 대비 0.4% 상승...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며 3개월 연속 상승

- 신규주택 건설 급증하며 9년 만에 최고 수준...부동산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

10월 주택착공건수 연율 기준 25.5% 급증한 132만건 기록 (2007년 8월 이후 최대치)
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197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...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

전주보다 1만9천명 줄어든 23만5천명 기록 (조사치 25만5천명을 하회)

* <유럽 마감> 국제 유가 상승과 유럽중앙은행(ECB)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주 최고치로 상승

- 이날 공개된 10월 ECB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위원들은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을 펼치기로 합의

* <상하이 마감> 조정 장세 속에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중국 내 광산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장 후반 상승 반전

* <도쿄 마감> '트럼프 랠리'가 가라앉으면서 보합권에서 장 마감

-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하자 최근 수익성 개선 기대로 지속 상승한 금융주 내리막

DOW30	18903.82	(+0.19%)
NASDAQ	5333.97	(+0.74%)
S&P500	2187.12	(+0.47%)
NIKKEI225	17862.63	(+0.00%)
SHANGHAI	3208.45	(+0.11%)
FTSE100	6794.71	(+0.67%)
DAX30	10685.54	(+0.20%)
CAC40	4527.77	(+0.59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 발언과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등으로 상승

위안화, 미 달러화에 대해 0.15% 추가 절하 고시... 10 거래일 연속 절하

유로/달러	1.0624	(-0.0058)
유로/엔	116.82	(+0.28)
달러/엔	109.96	(+0.88)
달러/위안	6.8692	(+0.0100)
파운드/달러	1.24204	(-0.00138)
NDF	1178.50 / 1179.00원...2.50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주요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 기대에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하락

-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·산업광물부 장관은 "OPEC이 알제리 회의에서 감산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"며 "산유량을 하루 3250만배럴로 낮추자"고 제안
-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.62% 상승한 100.92 기록... 2003년 4월 이후 최고 수준

* <국제 금값>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하락

WTI	45.42	(-0.3%)
COMEX금	1216.90	(-0.6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1980.55	(+0.05%)
코스닥	627.76	(-0.01%)
원/달러	1175.90	(+6.70)
KTb	109.50	(+0.23)
LKTb	126.38	(+0.96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장중 극심한 변동 끝에 하락 마감.

- BOJ가 고정금리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도 변동성 확대에 일조.
- 뉴스 이후, 전일에 이어 장중 단기물 손절물량이 주로 2~3년 구간에서 쏟아짐. 손절매도가 일단락되자 막판 숏커버 유입.

CD(91d)	1.4000%	(+0.01bp)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

[국고채]

1y	1.5520%	(-1.40bp)
3y	1.6800%	(-6.50bp)
5y	1.8150%	(-8.10bp)
10y	2.0500%	(-9.50bp)
20y	2.1400%	(-8.00bp)
30y	2.1550%	(-8.00bp)
50y	2.1420%	(-8.00bp)

[통안채]

1y	1.5460%	(-1.50bp)
2y	1.6500%	(-5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12.85bp (-0.50bp)
2Y	-18.00bp (+0.25bp)
3Y	-16.00bp (+0.25bp)
5Y	-21.00bp (+0.60bp)
10Y	-27.00bp (+2.0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막판 국채선물 급등으로 금리 대폭 하락 마감. 오퍼가 많았던 분위기.

* CRS, 달러-원 환율이 6.7원 오르면서 하락 마감.

*IRS 금리

1Y	1.4175%	(-2.00bp)
2Y	1.4700%	(-4.75bp)
3Y	1.5200%	(-6.25bp)
5Y	1.6050%	(-7.50bp)
7Y	1.6750%	(-7.50bp)
10Y	1.7800%	(-7.50bp)

1*2Y	5.25	(-2.75bp)
2*3Y	5.00	(-1.50bp)
2*5Y	13.50	(-2.75bp)
3*5Y	8.50	(-1.25bp)

5*7Y 7.00 (0.00bp)
5*10Y 17.50 (0.00bp)

*CRS 금리

1Y 0.9500% (-5.50bp)
2Y 0.9200% (-5.50bp)
3Y 0.9500% (-4.50bp)
5Y 0.9900% (-5.50bp)
7Y 1.0050% (-6.00bp)
10Y 1.0150% (-6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'트럼프 정부가 재정 부양에 나서면 연방준비제도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.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'

- 또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

*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,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피력

* 구로다 BOJ 총재 '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자동으로 일본 금리도 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및 물가 상황을 고려해 수익률 곡선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것'

* BOJ, 고정금리로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 실시

- 매입 대상은 잔여 만기 '1년 이상 3년 이하', '3년 이상 5년 이하' 국채로 이 범위에 포함된 2년만기 국채와 5년만기 국채를 금리가 각각 -0.090%, -0.040%이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

-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일본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구로다 총재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

* 최근 위안화 절하 추세,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가져온 충격 효과가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다 <WSJ>

- '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면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'고 지적... 위안화 가치 하락은 또 자본 유출을 일으키고, 이는 다시 위안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발생

- 중국 지도부 경제고문, '단기적으로 자산 거품과 중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위안화 절하 기대의 주요 원인'

- * 멕시코 중앙은행, 기준금리 4.75%에서 5.25%로 0.5%포인트(p) 인상...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인상
 - 페소 약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공약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설명

[국내]

- * 10년 국채선물 상승폭 재확대...숏커버·日 금리 연동
 - 일부 숏커버 유입으로 3년 국채선물이 강세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.
 - 장 막판 미국과 일본 등 해외금리를 추종하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음.
- * 임종룡 "금리 급등...12월 서민금융 현장점검 강화"
- * IFRS4 2단계(일명 IFRS17) 예정대로 도입에 보험사 '비상'...당국 "자본확충 등 대비해야"
 - 보험사 "부담은 늘었지만 예정됐던 수준...미리 대비해야"
 - 금융당국 "보험사, IFRS 선제적 대비 필요"
- * 채권시장 "IFRS17 2021년 시행...플래트닝 재료"
 -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예정대로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도 늘 것이라고 진단
 - 다만, 발표 전부터 시행 시기가 연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험사들이 급하게 초장기물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
 - 미국 채권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, 보험사들도 계획대로 장기물 매수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수익률 곡선 평탄화(플래트닝) 재료가 될 것
- * 생보株, IFRS17 부채 부담 완화로 강세
 - 그동안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이슈로 생보사 주가를 짓누르던 부담감이 공정가치 측정 기준 완화로 누그러졌기 때문

금일 예정 지표

[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]
 [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]
 [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]

중국-주택가격(YoY) (이전:11.2%)
 독일-10월 PPI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2%)
 한국-10월 PPI(YoY) (이전:-1.1%)